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7월 30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0장 10-16절

설교제목 : “간음하는 자는”

레위기 20장은 어떤 시대나 상황에서도 절대로 타협불가인 율법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음에 대한 금지, 근친상간의 금지와 동성애 금지와 수간금지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생명을 걸고 금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창조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마지막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창조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창1:26-28)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창2:5)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발전적으로 수행하여 만든 결과가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와 문명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문화와 문명들은 인간의 창조적 경작의 결과입니다.(참고 창 4:20-22) 그러나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지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적 발전의 수행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왜 가정입니까? 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일하심의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한마디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사역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방식과 일함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사역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일을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공동체의 방식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발전을 이루시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발전의 수행자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28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24에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심으로 결혼제도 즉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통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자녀출산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성적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생명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가 경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또 다른 경작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자로써 새로운 창조를 일구어내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계명이

신명기 6장 4-9절의 쉼마입니다. 결국, 가정의 역할은 탁월한 예배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참된 예배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로 자라서, 그 탁월한 예배자들끼리 결혼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계승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키워낼 때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이어 갑니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2:5에서 ‘땅을 갈 사람도’에서 ‘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를 창세기 2:15에서는 경작하다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의적으로 쓰이면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행위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온전한 창조를 수행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발전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근원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발전의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적 발전자로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공적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일을 할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발전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목적을 모릅니다. 가정의 목적을 내 행복으로 생각하니까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든든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앙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면 결혼했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간음도 좋고, 가정을 파괴해도 좋은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가정의 개념마저 해체해 버렸습니다. 사탄은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파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미워하십니까? 단순히 그 행위가 가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결혼한 가정에서 성적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이러한 질서를 깎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자녀를 참된 예배자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창1:26-28)
- 2) 성경적으로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창2:5)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